

# ‘大同’과 ‘桃花源’ 이후 유토피아는 어떻게 재현되는가

— 格非의 「人面桃花」에 대한 一考

김 경 석  
(경희대학교)

## ❖ 국문초록

공자의 大同과 陶淵明의 桃花源 이후 중국의 유토피아 상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유토피아 상상은 다양한 문학텍스트로 형상화되어 왔으며 이 작품들은 유토피아 상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桃花源’은 동아시아적 유토피아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桃花源은 노자의 소국과민을 바탕으로 하는 무정부주의 성격이 강한 유토피아이다. 桃花源은 통치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나 공자가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大同세상은 덕치(德治)를 전제로 상상 가능한 세상이다. 청말(清末)에 이르러 강유위(康有爲)는 「大同서」를 저술하고 이 가운데 제도를 통해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텍스트로 정전화 되었던 유토피아는 신해혁명 이후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문학 속의 ‘상상’을 일상의 ‘현실’로 구현하고자하는 실험이 계속되었다. 거폐이의 「人面桃花」는 바로 그 실험의 지점에 대한 성찰적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거폐이의 「人面桃花」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상상의 구현과정과 좌절을 묘사한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선봉과 작가로서 거폐이는 「人面桃花」를 통해서 유토피아적 상상의 욕망과 좌절을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서 유토피아는 끊임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대 중국 이후 지속되어온 유토피아적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흔적들을 문학텍스트 가운데서 탐색하고자 한다. 공자의 大同과 陶淵明의 桃花源 이후 21세기에 이르러 거폐이는 작품가운데서 다양한 인물형상을 통해 전통적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좌절의 과정을 묘사하였다. 작가는 그 좌절과 욕망의 과정이 바로 인간의 유토피아 상상의 생명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유토피아, 이상향, 大同, 桃花源, 陶淵明, 人面桃花, 格非

## 1. 서론

陶淵明의 ‘桃花源’과 孔子의 ‘大同’은 전통적인 중국의 이상향, 즉 유토피아는 어떠한 양태인지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기록된 「桃花源記」와 『禮記』의 「禮運」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국적 유토피아의 正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桃花源과 大同이 중국적 유토피아로 정전화된 이후 역대 중국의 위정자들은 그 유토피아적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문제를 고민하여왔고, 역사의 진행에 따라 유토피아의 실현에 대한 담론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다. 동아시아에서 역대 민중(농민)봉기의 수령들은 통치이념으로 大同세상과 桃花源의 구현을 민중들에게 제시하였고 청말 근대의 문턱에 이르러서 나타났던 洪秀全의 太平天國運動이나 康有爲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변법운동에서는 전통적 유토피아론에 서구사상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1911년 공화정의 수립과 5.4운동, 군벌정권의 거듭되는 반동정치를 경험하면서 중국문단은 유토피아 담론에 대해 좌절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레드릭 제임슨이 「유토피아의 정치학」에서 언급했듯이, 유토피아적 사유의 쇠락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정후로서, 그 자체를 놓고 합당한 진단을 내려야 마땅하고 어쩌면 새롭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른다. 19세기 말 제정체제의 붕괴 이후 1920년대 말까지, 정치적으로 거듭된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중국문단의 유토피아 불씨는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고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문학

적 실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디스토피아적 담론까지 포괄하는 문학텍스트로 부활하게 된다. 1930년대 이후 발표된 라오서(老舍)의 「貓城記」, 선충원(沈從文)의 「邊城」, 아이우(艾蕪)의 「山峽中」 등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작가들의 중국적 이해와 독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은 현실사회주의, 즉 유토피아적 상상을 현실로 재현하는 거대한 실험 단계를 경험하였다. 유토피아의 본질이 역사적으로 대안적인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담론으로서의 위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이는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수 천년 동안 봉건제정체제가 지속되는 역사의 과정에서 상상의 세계로만 존재하던 유토피아는 현실세계로의 소환이라는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공화정의 수립과 프롤레타리아 전정체제를 거치면서 현실 유토피아는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그 지난한 20세기를 보내며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은 퇴색하는 듯이 보였다. 혁명가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사회시스템은 현실 가운데서 최상의 질서와 가치로 환원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 21세기 중국의 문단은 유토피아 지향에 대한 성찰적 담론이 문학작품으로 재현되고 있다. 거페이(格非)의 「人面桃花」는 유토피아에 대한 그 성찰적 재현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人面桃花」는 거페이의 초기 작품들에 비해 형식과 언어 면에서나 더욱 소박하게 변했으며 창작기교 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중국 작가들은 여러 해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훈련을 한 후에 다시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던 작가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의 유토피아 상상의 始原이라고 할 수 있는 ‘大同’과 ‘桃花源’의 연원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그 고전적인 유토피아 상상이 근대적 개인에게 허용되는 시기를 묘사한 거페이의 「人面桃花」를 통해 유토피아가 문학텍스트로 재현되는 양상을 알아보기로 한다.<sup>2)</sup>

1) 謝有順, 「革命, 烏托邦與個人生活史-格非『人面桃花』的一種堵截方式」, 『當代作家評論』, 2005年 4期. (김순진, 「거페이(格非)의 人面桃花(人面桃花)속 유토피아 드림」, *Foreign Literature Studies* 제33호, 2009, 95쪽에서 재인용)

## II. 본 론

### 1. 중국적 유토피아의 正典化 - ‘大同’과 ‘桃花源’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신문화운동이 진행 중이던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맑스주의를 수용한 리다자오(李大釗)는 당시 신문화운동의 진지 역할을 하던 『新青年』에 「민중의 승리(庶民的勝利)」를 발표하고 베이징대학에 ‘맑스학설연구회(馬爾格斯學說研究會)’를 조직하였다. 또한 1919년 5월 『신청년』 제6권 제5기를 ‘맑스주의연구 특집호(馬克思主義研究專號)’로 발행하는 등 중국에 맑스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10월 혁명의 소식에 고무되었으며 맑스주의에 심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인들이 맑스주의를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맑스주의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孔子의 ‘大同’론과 유사한 진부한 학설로 치부하였다. 『禮記』의 「禮運」편에 기록된 공자의 ‘大同’론을 보면 20세기 초엽 중국의 지식인들이 어떤 관점에서 맑스주의를 이해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큰 도가 행해지는 천하는 공평(공유)하였으며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고, 신의와 화목함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자신의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자식만을 돌보지 않으며, 늙은이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였으며, 장정은 잘 쓰이는 바가 있었고, 어린이는 잘 자라는 바가 있었으며, 홀아비, 과부, 고아, 외로운 장애자들을 모두 부양하는 바가 있었고, 남자는 역할이 있었으며, 여자는 잘 시집감이 있었고, 재물이 그 땅에 버려지는 것을 미워하였으나 반드시 자기 것으로 저장하지 아니했으며, 힘쓰는 것을 자신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였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꾀함(謀)이 없어져 일어나지 아니했으니 도둑과 난적들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이 있어도 닫지 아니했으니 이를 일러 大同(大同)이라 한다.<sup>3)</sup>

2) 본 논문에 인용된 텍스트는 格非의 『人面桃花』(湖南文艺出版社, 2014)와 김순진 역 『복사꽃 피는 날들』(창비, 2009)를 저본으로 하며, 「人面桃花」에 나오는 고유명사의 우리말 표기법은 저본의 표기법을 따른다.

3)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 人, 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

‘大同’론은 유토피아를 德治로서 실현하고자했던 공자의 궁극적인 이상주의를 읽을 수 있는 단서로 평가 받는다. 러시아혁명 이후 맑스주의를 접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를 大同의 틀 속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또 다른 중국적 유토피아의 正典으로 「桃花源記」를 들 수 있다. 공자의 ‘大同’사회가 ‘德治’의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고자했던 유가적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다면 陶淵明의 ‘桃花源’은 老子의 小國寡民에 기초한 도가적 이상향을 상상하고 있다.

넓고 평탄한 토지가 펼쳐지고 좋은 집들이 즐비하였다. 기름진 전답과 연못이 있고 뽕나무 대나무 등이 뻗뻗하였다. 논밭은 사방팔방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개짖는 소리와 닭울음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 가운데 오고가는 사람들, 밭을 매는 사람들, 남녀 모두 옷차림은 바깥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모두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다.<sup>4)</sup>

陶淵明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魏晉南北朝 시대 東晉 말기부터 宋 초기를 살다간 문인이다. 당시는 중국은 끊임없는 전란에서 비롯되는 혼란과 궁핍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피폐해진 상황이었으며 현실생활에 대한 부정과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이러한 비극적인 시대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가적 이상주의를 통치의 지향점으로 내세우는 모순된 정치현실을 목도하면서 陶淵明은 유가적 위선으로 가득 찬 정치제도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이로부터 그는 자신의 이상향인 桃花源을 상상하게 되었다. 유토피아적 상상은 현존 체제에서 실현할 수 없는 사회질서와 시스템에 대한 설득력을 바탕으로 텍스트화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桃花源은 텍스트 속의 ‘상상’에 의존한 세계이기 전에 현존 체제에 대한 대안적 공동체로서 제시된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桃花源은 통치체제와 정형화된 상부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며 목가적이고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지 않는

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禮記』，「禮運」

- 4) 土地平曠，屋舍儼然，有良田，美池，桑竹之屬。阡陌交通，雞犬相聞。其中往來種作，男女衣著，悉如外人。黃髮垂髻，併怡然自樂。

곳이다. 陶淵明의 유토피아는 서구와는 다르게 존재론적인 세계가 아닌 인식론적인 실체인 것이며 ‘상대’라기 보다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상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桃花源記」가 탄생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 동진시기 때 노장사상과 청담 사상이 유행했다는 점이다. 지식인이나 문인들 사이에는 현묘한 이치를 논하고 청담을 즐기는 풍조가 성행하며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은둔적 삶을 지향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었다. 정권찬탈과 관리들의 부패, 지방군벌들의 토지경병전쟁 등의 혼란은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도피한 유유자적한 은일의 삶을 소망하게 했으며 그 소망은 桃花源의 상상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출현한 竹林七賢<sup>5)</sup> 역시 은일한 삶을 실현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이다. 죽림칠현은 자신들만의 무정부주의적인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하고자 했던 문인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유토피아 상상의 근대적 성찰 - 「人面桃花」

작년 오늘 이집에, 사람 얼굴 복사꽃이 서로 아우러져 밧그레하더니.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복사꽃만 여전히 봄바람에 만발하네.<sup>6)</sup>

거페이의 소설 「人面桃花」는 唐代의 시인 崔護의 七言絶句 「題都城南莊」에서 그 제목을 차용하였다.<sup>7)</sup> 중국의 대표적인 선봉과 작가<sup>8)</sup>로 평가받는 거

5) 竹林七賢: 중국 진(晉)나라 초기에 老莊의 無爲自然思想을 숭상하며 죽림에 모여 청담(淸談)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 명의 선비. 산도(山濤), 왕융(王戎), 유영(劉伶), 완적(阮籍), 완함(阮咸), 해강(嵇康), 상수(尙秀)가 이에 해당한다.

6) 去年今日此門中, 人面桃花相映紅. 人面不知何處在, 桃花依舊笑春風.

7) 「人面桃花」는 唐代 崔護의 「題都城南莊」에서 유래된 것은 분명하다. 후에 明代(明代) 맹칭순(孟稱舜)의 雜劇 『桃花人面』의 서사 역시 이와 관련된 서사라고 할 수 있다.

8) 중국에서는 절대 이성을 부정하고 광기와 폭력 등 인간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과격적인 형식과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며 과감한 해체와 변혁의 기치는 내건 선봉과 작가들이 1980년대 후반에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문학의 순수성, 자주성을 추구하며 문학과 역사 그리고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자 하였고, 이는 1980년대 작가들의 보편적인 창작 심리가 되기도 하였다. 거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선봉작가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하였다. 초기 작품에서 거페이는 과격적이고 다양한

페이의 「人面桃花」는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근대 중국의 유토피아 상상과 개인의 삶에 대하여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人面桃花」는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육손이)에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주인공 슈미가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아버지의 桃花源 환상과, 아버지의 가출 직후 그녀의 집으로 들어온 장지위안의 행적과 그의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화자서)에서는 장지위안의 죽음 이후 그의 일기장을 통해 드러나는 혁명가로서의 모습과 토비들의 소굴인 화자서에서 겪는 슈미의 고난 및 화자서의 몰락이 묘사되어 있으며, 제3부(꼬맹이)에서는 일본에서 푸지로 돌아온 슈미가 행하는 다양한 개혁과 그녀가 세운 푸지학당의 모습 및 그녀의 혁명 실패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4부(말을 금하다)에서는 감금에서 풀려난 슈미의 삶과 그녀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人面桃花」는 서구적 가치를 다소 맹목적으로 추수했던 거페이의 반성과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작가의 재해석이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이후 탈서구(脫西歐)를 상상하는 중국 지식인의 고뇌를 반영한 작품이기도 하다. 소설의 제목 ‘人面桃花’는 당대(唐代)의 시인 崔護의 七言絶句 가운데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복사꽃은 여전히 봄바람에게 웃음을 보내고 있네”(人面不知何處去와 桃花依舊笑春風)에서 차용한 것이다.

여기서 인면(人面)이 사람의 욕망, 충동, 고독, 신념, 탐색, 상실, 사망 그리고 미지 등을 포함한 인간과 생명의 존재형태로 해석된다면 도화(桃花)는 시간, 공간, 자연, 재난, 숙명 등 사람들이 느끼거나 감지할 수 없는 여러 외부적 존재들로 해석할 수 있다.<sup>9)</sup>

---

형식의 실험을 하였으며 뒤영킴, 부딪침, 의식의 확산과 단절이 있는 코일과도 같은 인물의 내재적 의식의 미궁을 추궁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궁서사 혹은 공결서사를 즐겨 사용하는 작가, 중국에서의 보르헤스 계승자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중국문화에 대한 거페이의 태도가 중국문화를 사랑한 보르헤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까지 받고 있기도 하다.

- 9) 張學昕, 「格非『人面桃花』의 詩學」, 『當代作家評論』 2005年 2期, p42. (거페이 저, 김순진 역, 『복사꽃 피는 날들』, 창비, 2009, 577쪽에서 재인용)

「人面桃花」에서는 3명의 인물을 통해서 3가지의 유토피아가 등장한다. 여 주인공 루슈미(陸秀美)는 그녀의 일생을 통해서 3명의 인물인 루슈미 아버지 루칸(陸侃), 장지위안(張季元) 그리고 왕관청(王觀澄)의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 루칸과 왕관청은 중국의 전통적인 桃花源 드림을 추구하였으며, 근대화된 인물인 장지위안은 혁명 유토피아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슈미는 푸지(普濟)에서 장지위안의 사상을 계승받아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人面桃花」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상하는 유토피아는 각각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작품 속의 배경은 이미 20세기에 접어든 신해혁명 시기이다. 청말 康有爲를 중심으로 立憲派 지식인들은 『大同書』를 통해 전통적 유토피아와는 다소 다른, 근대적 大同세상을 상상하고 있었다. 이들의 大同사상은 기본적으로 인성론에 근거하여 절대평등의 공동체주의를 의미하는 ‘天下爲公’의 무소유, 무차별, 무경계를 주창했던 공자의 大同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大同세상을 구현하는 제도로서 서구의 입헌제와 공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桃花源’ 속에 묘사되는 중국의 전통적 이상향은 당시 입헌파들이 상상하던 중국의 미래와는 매우 거리가 있었다. 세속의 각박함과 폭압과 수탈의 사슬에서 탈출하여 권력의 횡포와 인간의 탐욕으로 벗어나 자연적으로 형성, 유지되는 촌락공동체를 상상한 桃花源과는 다르게 새로운 정치체제와 사회적 통제를 통해 평등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陶淵明의 桃花源에서는 大同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느 것도 인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주민들은 순박한 심정이 전제되어 있고, 속세의 오염과 단절되어 있으며, 산다는 것이 많은 물질의 탐욕적 소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어떠한 것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 가며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상황에 있다.

「人面桃花」에 묘사된 桃花源의 이미지는 분명 전통적 유토피아 정전과 관련 있다. 전통적 이상향은 슈미의 아버지와 왕관청이 상상하던 세상인 것이다. 아버지는 桃花源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었고 약소하게나마 그 모습을 자신의 마을에서 실현시켰다.



“그건 그가 정원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마을 전체의 가가호호마다 집 앞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싶다고 나와 상의한 적이 있었지”……

“왜 복숭아나무를 심으려 하셨나요?” “푸지가 본래 진나라 陶淵明이 발견한 桃花源이고 마을 앞에 있는 강이 바로 무릉도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는 푸지에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긴 회랑을 만들어 마을의 모든 집들을 연결하기를 원했어. 하하, 그는 그렇게 하면 푸지 사람들이 햇볕을 쬐고 비에 젖는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지.”<sup>10)</sup>

위에 인용된 글을 보면 주인공 슈미의 아버지는 마을 전체를 桃花源이라 믿었으며 마을을 「桃花源記」 속의 마을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와 마을의 관계는 아버지와 양숙관계에 있던 명슈쨌로부터 선물로 받은 도원도(桃園圖)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아버지 이름을 陶淵明의 증조부 이름과 같은 칸(侃)이라는 점 역시 아버지의 이상향이 陶淵明과 연관된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사유 속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桃花源에 더욱 근접한 공간으로 화자서(花家舍)가 제시되고 있다. 화자서는 비록 슈미가 납치되어 간 장소이지만, 왕관청이 자신의 유토피아 상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곳이다.

밖에서는 화자서가 토비의 소굴로 보이겠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이곳은 세상 밖에 있는 진정한 桃花源이란다. 내가 이곳에서 심혈을 기울인 지 이미 큰 이십 년이 되었지.……

밤에 문을 닫지 않아도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진실로 요순시대라고 할 수 있었어. 심지어 집집마다 내리 비추는 태양도 모두 똑같았어. 봄기운은 따뜻하고 경치는 깨끗하며 이슬비는 부드럽고 복숭아꽃과 배꽃이 아름다운을 서로 다룰 때면 벌들도 길을 잃곤 했지.<sup>11)</sup>

10) “那是因为他要在院里栽种桃树……。他为什么要种桃树呢? 因为他相信, 普济地方本来就是晋代陶渊明所发现的桃花源, 而村前的那条大河就是武陵源……。他要在普济造一条风雨长廊, 把村里的每一户人家都连接起来, 哈哈, 他以为, 这样一来, 普济人就可免除日晒雨淋之苦了。”

11) “在外人看来, 花家舍是个土匪窝, 可依我之见, 它却是真正的世外桃源。我在这里

이처럼 화자서에 대한 묘사는 「桃花源記」의 데자뷰적 연상을 하게 된다. 모든 자연이 어우러져 있으며 평안하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곳이 무릉도원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뛰놀며 노래하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은 유유히 걸으며 즐기네. 풀이 무성하면 계절이 좋은 것을 알고, 나무가 시들면 바람이 거센 것을 아네. 달력을 적지 않아도 사계절이 바뀌면 저절로 한해가 간다. 조용하고 담담한 즐거움이 넘치니 어디에 지혜를 부릴 것인가?<sup>12)</sup>

이처럼 桃花源에 투영된 노장사상은 화자서의 일상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다만 화자서와 다르게 桃花源은 자급자족을 하며 외계와 완벽히 격리된 곳이었다. 자원이나 생활 모든 방면에서 공유를 하고 다툼이 없으며 사유재산이나 자신만의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화자서의 일상에 대한 묘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화자서는 산이 높고 밭이 적으며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왕관청은 집을 고치고 물길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도 풍우장량을 세우려고 했지.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그는 관직에 있을 때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하던 사람이니 자연히 강탈을 생각해냈지.

이처럼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자급자족을 이룰 수 없는 화자서라는 세계는 외부에서 약탈이라는, 평화와 매우 대비되는 방법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간다. 그들이 왕관청에 의해 교화되어 서로의 것을 양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 편에는 어두운 이면이 잔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약탈을 통해야만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苦心孤詣，已近二十年……。夜不閉戶，路不拾遺，洵然有堯舜之風。就連家家戶戶所晒到的陽光都一樣多。每當春和景明，細雨如酥，桃李爭艷之時，連蜜蜂都會迷了路。”

- 12) “童孺縱行歌，班白歡遊詣，草榮識節和，木衰知風厲，雖無紀曆誌，四時自成歲，怡然有餘樂，于何勞智慧” 「桃花源詩」

탈취해온 옷과 돈은 가구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했고 호수에서 잡아 온 물고기도 호숫가에 쌓아놓고 아무나 와서 가져가도록 했다.

또한, 살인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十殺令<sup>13)</sup>이 있는 것도 평화를 유지한다는 목적 하에 생겨난 일종의 인종청소 강령과 같은 것이었다. 토비의 ‘十殺令’은 李群이 『清議報』에 쓴 「殺人論」과도 매우 유사한데, 살인은 부득이 한 방법이고 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

장지위안의 이상향은 전통적이기 보다는 혁명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장지위안은 혁명당원으로서 서구적 인물이며 매우 급진적인 大同의식을 지니고 그로인해 무정부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장지위안과 앞의 슈미의 아버지, 왕관청의 공통점은 모두가 평등하게 같이 누릴 수 있는 大同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단지, 장지위안은 근친도 가능하다는 급진적이고 원시적인 유토피아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이상향들이 결국 大同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슈미로 귀결되고 있다. 슈미는 화자사에서 일본을 거쳐 다시 푸지로 돌아온다. 그녀는 푸지학당을 세워서 이상을 실천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보육원, 서점, 양로원을 만들고 거대한 수로를 건설했으며 푸지의 모든 전답을 강과 연결시키고 큰 식당을 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조롱과 외면이었다. 심지어 그녀를 가장 잘 이해하던 추이렌도 “그건 모두 그녀 혼자 잠 못 잘 때 공상으로 만들어 낸 것일 뿐이야”라며 그녀를 외면하고 그녀가 하는 일들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녀가 직면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大同이라는 이념이 현실에 오면서 문제점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푸지 사람들을 모두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옷을 입는 같은 사람으

---

13) 十殺令: 1.부동산이 사십 묘를 넘는 자는 죽인다. 2.고리대금업자는 죽인다. 3.조정 관원 중에 행적이 악랄한 자는 죽인다. 4.기녀는 죽인다. 5.도둑질한 자는 죽인다. 6.문둥병이나 장티푸스 등 전염병 환자는 죽인다. 7.여성과 아동, 노약자를 학대하는 자는 죽인다. 8.전죽한 자는 죽인다. 9.사람을 매매한 자는 죽인다. 10.매파, 무당, 승려, 도사는 모두 죽인다.

로 만들려고 해. 마을의 각 가구의 집은 크기와 양식이 모두 똑같아야 해. 마을의 모든 땅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동시에 또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도 해. 마을 전체 사람들은 함께 땅을 갈고 일을 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등을 끄고 잠을 자며, 모든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똑같아. 집에 비치는 태양의 양도 같고 집집마다 지붕위에 떨어지는 비와 눈의 양도 같아야 하며, 모든 사람의 웃음도 똑같고 심지어 꾸는 꿈도 모두 같아야 하지.

그녀가 실천하고자 한 이상향은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까지 없애고 모두가 동일한 것만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앞서 말한 大同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놓고 모두가 만족함을 느껴야 하지만 극단적 실천방법은 서로 다른 개성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역으로 개개인 바라는 상태에 이를 수 없게 된다. 결국 개인에 대한 억압은 정신적 폭력으로 반영되어 개인에게 돌아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런 방법은 결국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하고 그녀의 학당에는 혁명 혹은 이상실천을 꿈꾸는 사람보다는 개인의 욕망이 담긴 이상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람들 혹은 단순히 무료 배식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거지들이 모이게 되었다. 심지어 기존에 있던 혁명당원들도 조정의 병사들이 혁명당원들을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떠나버린다. 마지막에는 푸지학당에 관병들이 오게 되고 슈미의 아들을 죽이는 등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잇따른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桃花源記」에서는 푸지와는 다르게 모든 주민들이 한 공동체 아래에 같은 생각으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어부가 그들과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桃花源이 유지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철저한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桃花源을 나간 어부가 관리들과 함께 다시 그 곳을 찾아오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桃花源은 영원히 중국인들의 유토피아적 상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人面桃花」에서 비록 슈미는 완전한 이상향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그녀의 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왕관청이 “시간은 돌고 돌아 환영이 재생되지. 과도가 미처 가라앉지 않았는데 다른 과도가 올라와”라고 말하면서 이상향에 대한 추구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반복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桃花源記」에서도 다시는 桃花源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은

그 곳은 어디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어디인가 존재하는 인간은 桃花源을 찾기 위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III. 결론

일반적으로 ‘桃花源’은 동아시아적 유토피아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桃花源은 노자의 소국과민을 바탕으로 하는 무정부주의적 성격이 강한 유토피아이다. 桃花源은 ‘治’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것과 달리 공자의 大同세상은 ‘治’를 전제로 상상 가능한 세상이다. 청말에 이르러 강유위는 「大同書」를 제시함으로써 大同의 상상을 제도로서 현실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문학텍스트로 정전화 되었던 유토피아는 신해혁명 이후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문학 속의 ‘상상’을 일상의 ‘현실’로 구현하고자하는 실험이 계속되었다. 거페이의 「人面桃花」는 바로 그 실험의 지점에 대한 성찰적 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이들의 유토피아 드림은 모두 大同사회를 꿈꾸고 있지만 아버지가 추구했던 桃花源 유토피아 드림과 장지위안이 추구했던 혁명 유토피아 드림은 각각 중국의 전통적인 유토피아 드림과 서구의 영향을 받은 근대적 유토피아 드림이라는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5)</sup>

거페이는 중국 역사 속에서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반복되는 유토피아적 상상의 단절과 연속에 주목하면서 근대 이후 유토피아를 현실화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유토피아와 개인의 함수관계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가운데 루슈미의 아버지 루칸과 왕관청은 陶淵明의 桃花源을 상상하였으며, 장지위

14) 거페이는 비록 중국문단의 선봉파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人面桃花」 역시 反思文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김순진, 「거페이(格非)의 人面桃花(人面桃花)속 유토피아 드림」, *Foreign Literature Studies* 제33호, 2009년, 78쪽.

안은 공자의 大同세상을 상상하였다고 이들의 유토피아 상상은 근대 이후 康有爲가 「大同書」에서 주장했던 만민평등사상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상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토피아적 상상은 누군가에 의해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大同과 桃花源의 상상 이후 21세기에 이르러 거폐이는 소설 속 인물들의 상상과 시도를 통해 전통적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좌절을 묘사하였다. 작가는 그 좌절과 욕망이 바로 인간의 유토피아 상상의 생명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格非, 『人面桃花』, 湖南文艺出版社, 2014.
- 陶淵明, 「桃花源記」, 『中國古典文學作品選』,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7.
- 宋偉傑, 『從娛樂行爲到烏托邦衝動』, 江蘇人民出版社, 1999.
- 김순진, 「거폐이(格非)의 『人面桃花』속 유토피아 드림」, *Foreign Literature Studies* 제33호, 2009.
- 꺼폐이, 『복사꽃 피는 날들』, 김순진 역, 창비, 2009.
- 이면호, 「中國人的 유토피아思想 研究」, 『국민윤리연구』 제34호, 1995.
- 이인경, 「東洋의 理想郷 ‘桃花源’의 특징과 「桃花源記」의 藝術境界」, 『동양학』 제54집, 2013.

❖ ABSTRACT

A Study on Chinese Utopia Literature - *TaohuaYuanji* &  
*Renmiantaohua*

Kim, Kyung-Seog

Since the Taoyuanming of Confucius an Arcadia (Taohuayuan), utopia imagined in China has continued to this day. Such utopian imagination has been shaped by a variety of literary texts. These works depict the human desires and frustrations that form the utopian imagination. Typically, an Arcadia (Taohuayuan) has been recognized as a symbol of East Asian utopia. An Arcadia (Taohuayuan) anarchism is the utopian character of this small country, based on sensitization of the Lao strong. An Arcadia (Taohuayuan) world ruling class does not exist. But Confucius thought a utopian world is possible to imagine on the premise of ‘Virtuous Policy’ (德治). By the late Qing Dynasty (清末), Kangyouwei (康有爲) had written and presented a utopia realized through the system of the “East-West stand.” The literary text on utopia information in continued to experiment with implementation of the ‘imagined’ in the literature as “reality” of everyday life, immediately following the 1911 revolu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n Avant garde writer, Gefei’s 「Renmiantaohua」 was influenced by the reflexive nature of the report on the point of the experiment.

Gefei’s 「Renmiantaohua」 has been rated as an outstanding work depict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frustration of the utopian imagination. He is an inspiration to vanguard artists who focus on the desire and the frustration of the utopian imagination through the 「Renmiantaohua」 myths and stories that are comparable to the Sijipuseu story, which in itself perpetuates utopia in literature.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trails to implementation of a utopian imagination that has persisted since the ancient Chinese in current literary text. An Arcadia (Taohuayuan) of Confucius and Taoyuanming accompanied Gefei in the 21st century in describing the process of desire and frustration to realize utopia through a variety of traditional shape figures among other favorites. The author interprets those frustrations and desires of the human life course as just utopian imagination.

---

**Key Words**

Utopia, Arcadia, Datong, Taoyuanming, Gefei, 「Renmiantaohua」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